

공 고

●문화재청공고 제2021-37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8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0. 29.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 총 7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무예제보 (武藝諸譜)	1책	경기도 (수원화성박물관)
2	대승기신론소 권하 (大乘起信論疏 卷下)	1권 1책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3	초조본 아비달마대비사론 권5 (初雕本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卷一百七十五)	1권 1축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4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康津 無爲寺 減役教旨)	1첩	대한불교조계종 금당사
5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江陵 普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①보살상 1구, 중수발원문 1점, 후령통 1점(황초폭자, 오보병 알뜰) ②1599년 중수 오보병 및 직물 8점 ③ 「일체여래삼비밀전신사리보협안다라니」 3점 「백지묵서 재잔안」 1점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사
6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蔚山 新興寺 石造阿彌陀如來坐像)	불상 1구, 발원문 1점, 후령통 1점, 복장직물 8점, 보석류 1점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7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서울 興天寺 毘盧遮那佛 三身掛佛圖)	괘불도 1폭, 복장낭 3점, 괘불함 1점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추가 지정예고 : 총 1건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비고
윤봉길의사 친필 편지봉투 (尹奉吉義士 親筆 便紙封套)	3점	윤 * (윤봉길의사기념관)	'윤봉길의사 유품'(보물 제568-3호)에 추가 지정

다.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보물 지정예고】

□ 무예제보(武藝諸譜)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무예제보(武藝諸譜)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수원화성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수원화성박물관
- 수 량 : 1책
- 규 격 : 전체 31.2×19.6cm, 半郭 23.8×15.8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598년(선조 31)
- 사 유

『무예제보(武藝諸譜)』는 한교(韓嶠, 1556~1627)가 왕명을 받고 중국 명나라 장군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참고하여 조선의 무인이나 대중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봉(大棒, 곤봉)」·「등패(藤牌, 방패)」·「낭선(狼筈, 낭선창)」·「장창(長鎗, 긴창)」·「당과(鎗鉞, 삼지창)」·「장도(長刀, 장검)」 등 무기 6종의 제작법과 도해(圖解)를 수록해 편찬하고 그 내용을 한글로 언해(諺解)하여 1598년(선조 31) 10월 목판으로 간행한 무예서이다.

이 책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무예서 중 가장 먼저 편찬되어 후대의 무예서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 더욱이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진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학술적·문화제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610년(광해군 2)년에 간행된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翻譯續集)』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무예제보’는 기 지정정보보다 앞서 간행된 책으로 조선의 국가 방위를 위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 증보 간행된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사유로 ‘무예제보’는 우리나라 무예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만큼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 대승기신론소 권하(大乘起信論疏 卷下)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승기신론소 권하(大乘起信論疏 卷下)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휴양림길 132, 용문사
- 수 량 : 1권 1책(33장)

- 규 격 : 34.5×32.3cm, 匡高 23.3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61년(세조 7) 판각
- 사 유

『대승기신론소』는 인도 승려 마명(馬鳴)이 짓고 양나라의 진제(眞諦, 499~569)가 한문으로 번역한 『대승기신론』을 당나라 승려 법장(法藏, 643~712)이 주석을 달고 저술한 불교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원각경』·『능엄경』 등과 함께 불교전문강원의 사교과(四教科) 과목으로 예로부터 학습됐던 주요 경전이다.

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 권하’는 법장이 저술한 3권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조선 1461년(세조 7)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만든 경판(經板)에서 인출(印出)한 권하(卷下)에 해당하는 1책(33장)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법장의 『대승기신론소』로서는 1457년(세조 3)년에 간행된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과 1528년(중종 23), 1572년(선조 5)에 번각(翻刻)된 목판본 등이 있으나, 1461년에 간행된 사례로는 용문사 소장본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대승기신론』 주석의 내용과 간행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본으로서 불교학, 서지학적 가치가 크므로 보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初雕本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一百七十五)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初雕本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一百七十五)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옹주로 69, 법장사
- 수 량 : 1권 1축
- 규 격 : 43.8×889.3cm(1장 21.9×43.8cm 내외)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권축장
- 조성연대 : 고려 11세기 판각 추정, 고려 12세기 전후 후쇄 추정
- 사 유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는 1011년(현종 2)부터 1087년(선종 4) 사이에 완성된 고려 초조대장경에 속한 경전으로서, 총 200권 중 권175의 1권에 해당하는 두루마리 형태의 경전이다. 『대비바사론(大毗婆沙論)』 등으로 줄여 부르는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아비달마발지론(阿毗達磨發智論)』의 주석서로,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소승불교의 한 분파)의 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다른 부파와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교리를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 쿠산왕조의 카니시카(Kaniska) 국왕 때 5백인의 아라한(阿羅漢·羅漢)이 주석을 달고 저술하였으며,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玄奘)이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후대에는 아비달마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논서(論書)의 모범이 되었다.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1축은 고려 11세기에 판각된 초조대장경판 가운데 포함된 해당 경판을 바탕으로 간행한 것으로,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되어 있다가 1232년(고종 19) 몽골 침략군에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판에 편입된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의 목판에서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권175의 유일본으로서 희소 가치가 있으며, 기 지정된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38’의 1축보다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원형도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다.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는 고려 12세기 전후 경에 인출한 불교경전으로, 초조대장경판 조성 불사(佛事)의 성격과 해당 경전의 유통상황 등을 파악하고 경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높다.

□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康津 無爲寺 減役教旨)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康津 無爲寺 減役教旨)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금당사
- 소재지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217, 금당사
- 수 량 : 1첩
- 규 격 : 45.7(세로)×105.3cm(가로)
- 재 질 : 한지(韓紙, 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절첩본(折帖本, 改裝)
- 조성연대 : 1457년(세조 3)
- 사 유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이다. 세조 연간 불교시책의 일환으로,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해 예조(禮曹)에 하교하였고, 같은 해 7~8월 동안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하였다. 당시 발급된 감역교지로 원문서가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 교지를 포함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가 있으며 이 3건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절첩본 형태로 개장하였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특히 세조의 서명인 어압(御押)과 ‘시명지보(施命之寶)’의 어보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조선 초기 고문서로서, 국가문서 양식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조선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살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선시대 경제사 및 불교사 등 관련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강진 무위사에 발급된 감역교지로서는 유일한 자료로서 희소성과 역사성이 분명하며, 같은 시기 작성된 다른 문서들과 함께 역사적·학술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江陵 普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 지정현황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3호(2015.3.6 지정)
- 명 칭 :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江陵 普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사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현길 396, 보현사
- 수 량 : ①보살상 1구, 중수발원문 1점, 후령통 1점(황초폭자, 오보병 일괄)
②1599년 중수 오보병 및 직물 8점
③「일체여래심비밀진신사리보협인다라니」 3점, 「백지묵서 제진언」 1점
- 규 격 : ①불상 높이 73cm, 어깨너비 25cm, 무릎높이 9.0cm, 무릎너비 44cm
밑면 41.0×44.5cm, 복장공 13.6×22.0cm
②중수발원문: 34.5×34.5cm, ③후령통: 높이5.5×지름 2.5cm(황초폭자 43.0×44.0cm)
④보협인다라니1: 36.2×42.0cm, 다라니2: 37.0×41.9cm, 다라니3: 36.9×42.5cm
⑤백지묵서 제진언: 44.6×84.0cm
⑥1599년 중수복장 오보병 및 직물: 별표 참조
- 재 질 : 목조
- 조성연대 : 고려 말~조선 초(1466년 중수 추정, 1599년 중수)
- 제작자 : 1599년 중수 화원 석준(釋俊), 원오(元悟)
- 사 유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제작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1599년 중수기(重修記)와 전체적인 조각양식을 통해 고려 말~조선 초에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복장(腹藏) 후령통 안에서 발견된 중수기에 의하면, 이 보살상은 조각승 석준(釋俊)과 원오(元悟)가 1599년에 상원사 문수동자상과 함께 중수한 것으로, 이 중수기는 상원사 문수동자상에서 발견된 중수기와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물론 보현사 보살상과 상원사 보살상은 재질 및 비례, 얼굴 모습, 조형성에서 차이가 있으나, 1599년 중수 불사를 함께 시행했다는 점에서 두 사찰의 성격, 승려문중, 후원자 등에서 유사한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보현사 목조보살좌상이 갖춘 수준 높은 조형성은 왕실에서 발원하였을 연관성을 보여준다. 1599년에 왕실에서 조성한 상원사 문수동자상(1466년)과 함께 중수하였다는 사실과 중수기를 감싸고 있던 황초폭자에 적힌 “왕비윤씨(王妃尹氏)”라는 기록은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 윤씨(1418-1483)가 발원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을 말해 준다.

보살좌상은 두 어깨를 감싼 통견(通肩) 형식의 대의를 입었으며 어깨가 좁고 길쭉한 비례에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를 하고 있다.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寶冠)을 쓰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뿜아 올려 보계(寶鬘)를 만들었으며, 가름한 얼굴, 깊게 팬 눈썹 골, 부푼 눈두덩이, 눈

고 오뚝한 코 등으로 인해 또렷하고 이국적인 인상을 풍긴다. 삼도(三道)와 근육이 표현된 목과 가슴, 가늘고 긴 두 손에는 양감이 느껴지며, 몸 전체를 감싸며 흘러내린 가사의 유려한 기법이 돋보인다. 특히 공간을 이루며 묶어 올린 몇 가닥의 보계와 왼쪽 어깨에 표현된 화려한 가사 고리 장식은 다른 보살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얼굴 모습, 신체 비례, 세부적인 표현에서 고려 말~조선 초의 조형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존작이 많지 않은 이 시기 불상 연구에 크게 기여할 작품으로 평가된다. 조선 초 왕실발원이라는 배경과 이국적인 얼굴과 화려한 조각기법,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있는 문수보살의 수인(手印), 17세기 대표적 조각승 석준과 원오의 작품이라는 점 등 한국불교조각사에 뚜렷한 위상을 갖추고 있어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복장에서 발견된 「일체여래심 비밀전신사리 보협인다라니」와 「백지묵서 제진언」은 1466년 상원사 문수동자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다라니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강릉 보현사 문수보살좌상과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연혁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함께 지정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별표) 1599년 증수복장 오보병 및 직물 목록 및 크기

연번	명칭	사진	재질	크기 (cm)	수량	연대
1	오보병		紬	①6×7.5 ②6.8×15.5 ③4.57.5 ④5.5×8 ⑤8×4.5	5	조선 (1599 추정)
2	오보병 (거친모탄 보문단)		*	14.5×7.5	1	상동
3	직물류		*	①16×10.5 ②12×5.5	2	상동

□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蔚山 新興寺 石造阿彌陀如來坐像)

- 지정현황 :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9호(2019.1.10 지정)
- 명 칭 :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蔚山 新興寺 石造阿彌陀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280, 신흥사
- 수 량 : 불상 1구, 발원문 1점, 후령통 1점, 복장직물 8점, 보석류 1점
- 규 격 : 상 높이 92.7cm, 어깨너비 45cm, 무릎너비 75cm, 무릎높이 22.7cm
- 재 질 : 석조, 종이, 비단
- 조성연대 : 1649년(인조 27)
- 제작자 : 영색(英曠), 수환(守還), 승일(勝溢), 천유(天有), 일륙(鈞勒)
- 사유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신흥사 대웅전에 봉안된 대세지-관음보살좌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상 중 본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질은 불석(拂石, 규산염의 일종으로 흰색의 광물)이다. 이 불상은 발원문에 1649년 불석의 산지였던 어천(현재 포항 오천읍)에서 돌을 채석해 조성하고 배를 이용해 신흥사까지 옮겨온 사실이 밝혀져 있어 당시 불석 불상의 제작지와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힌 첫 번째 사례이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17세기 전반기 전국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 영색(英曠; 英頤)이 경상도 지역에서 불석이라는 재료를 사용해 만든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기년명 불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각승 영색은 ‘英曠’(영색) 또는 ‘英頤’(영이)라고도 쓰며, 신흥사 불상은 양주 회암사 불상 다음으로 그가 수조각승이 되어 두 번째로 제작한 불상이다.

본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은 짧은 목에 머리를 약간 숙인 결가부좌의 자세를 하고 있으며, 짧은 상반신에 비해 다리 간격이 넓고 무릎이 높은 편이어서 하체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비교적 넓은 얼굴과 긴 눈썹, 작고 오뚝한 코, 눈꼬리가 올라간 긴 눈, 깊게 팬 입술 가장자리와 볼록하게 올라온 턱에서 온화하면서도 개성 있는 인상이 느껴진다.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49년이라는 명확한 제작 시기, 영색이라는 수조각승, 아미타불상이라는 존명 등을 바탕으로 17세기 중엽경 불상 조성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의 산지(山地)와 이운 과정을 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크다.

□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서울 興天寺 毘盧遮那佛 三身掛佛圖)

-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2호(2015.4.23 지정)
- 명 칭 :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서울 興天寺 毘盧遮那佛 三身掛佛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흥천사길 29, 흥천사
- 수 량 : 괘불도 1폭, 복장낭 1건 3점, 괘불함 1점
- 규 격 : ①괘불도: 전체 575.5×378cm, 화면 544.4×367.0cm

②패불합: 407.6×36.8×39.6cm

③복장낭: ①13.5×17.5cm(복장물 9.5×13cm), ②전체 34.8cm, ③전체 46.2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패불도: 1832년(순조 32), 복장낭: 1832년(순조 32), 패불합: 1884년(고종 21)

○ 제 작 자 : 금어(金魚) 화담 진선(華潭 慎善), 영운 의윤(影雲 義允), 경안 환간(慶雁 煥鑑), 환송 도장(煥公 道鎭), 충운(忠雲), 두일(斗一), 승운(勝雲), 도문(道文), 장권(壯權), 일전(一典), 계륜(桂輪), 일환(一環), 선탄(善坦), 쾌정(快定), 성우(性愚), 혜호(慧浩), 당활(暢活)

○ 사 유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패불도’는 1832년(순조 32)에 수화승 화담진선(華潭慎善)을 비롯해 총 17명의 화승이 조성한 불화이다. 화담진선은 1790년 용주사 불화를 주도했던 상검, 민관, 연흥 등 서울경기 지역 화원들의 화풍을 계승한 인물로, 19세기 경성화파(京城畫派)를 대표한 화승이다.

이 패불도는 1832년 순조(재위 1800~1834)와 왕비, 효명세자의 부인과 빈궁, 세손(후에 헌종)의 만수무강을 기원해 제작된 것으로, 시주에는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을 비롯해 정조의 딸 숙선옹주(淑善翁主)와 부마, 순조의 딸 명온공주(明溫公主), 복온공주(福溫公主), 덕온공주(德溫公主)와 부마 등 왕실 인사와 상궁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흥천사 패불도의 가장 큰 특징은 도상(圖像)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사나불을 여래형으로 표현해 삼신불 도상에 변화를 주었으며, 가섭·아난존자, 기상문수·기사보현동자가 결합한 구성, ‘불-제자-동자(문수·보현)도상을 상·중·하단으로 배치한 구도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서울·경기지역의 패불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패불도는 당시 서울 경기 지방의 많은 패불에서 볼 수 있는 비로자나삼신불 도상의 경향을 알려주고 있을 뿐 아니라, 온화하고 기품있는 존상의 표현, 정확하고 견고한 필치와 선명하고 밝은 채색, 그리고 섬세한 문양 등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격조 있는 화풍을 유지하고 있어 예술적 가치도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복장물, 그리고 패불합까지 갖추고 있고 각기 화기(畫記)를 비롯한 기록도 남아있어 완전성이 뛰어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 윤봉길의사 친필 편지봉투(尹奉吉義士 親筆 便紙封套)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윤봉길의사 친필 편지봉투(尹奉吉義士 親筆 便紙封套)

○ 소유자(관리자) : 윤 *(윤봉길의사기념관)

○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윤봉길의사기념관

○ 수 량 : 3점

○ 규 격 : 편지봉투①:4.8×7.2cm, 편지봉투②: 8.0×18.4cm, 편지봉투③: 7.5×13.0cm

○ 재 질 : 종이(양지)

○ 조성연대 : 1931~193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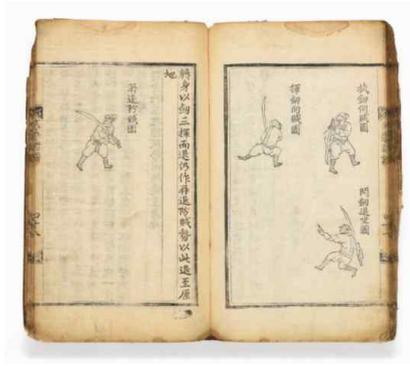
○ 제 작 자 : 윤봉길

○ 사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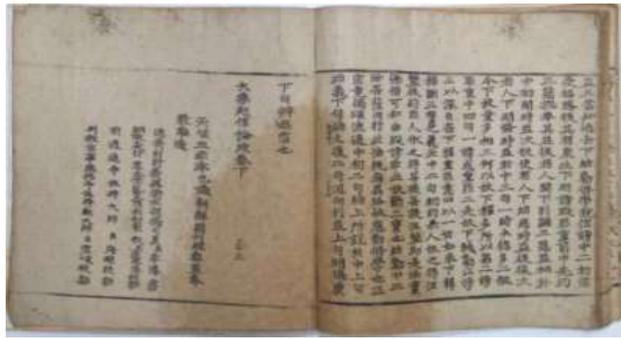
‘윤봉길의사 친필 편지봉투’ 3점은 1931~1932년 동안 윤봉길 의사가 동생 윤남의(尹南儀:永錫)에게 보낸 편지로서, 윤남의 후손가에 보관되어 온 봉투이다. 이 봉투 3점은 보물 ‘윤봉길의사 유품’에 포함된 편지와 발신자 및 수취인, 내용, 크기 그리고 서체 등을 비교해 볼 때, 기존 지정된 편지들과 연관성이 명확하고 전래 과정이 분명한 유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윤봉길 의사의 유품은 윤봉길 의사의 정신과 행적을 상징하는 역사성을 높이 평가하여 1972년 보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미 지정된 편지 유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기 보물 지정 목록에 포함해 함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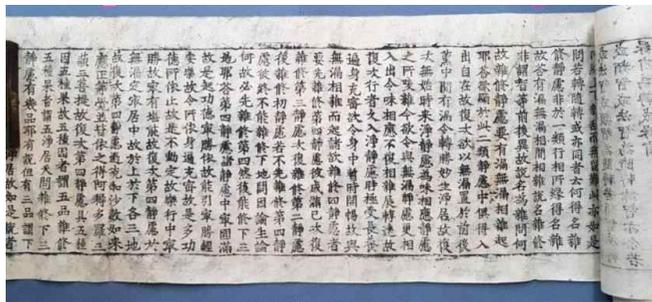
【지정 예고 사진】



<무예제보>



<대승기신원소 권하>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서울 홍천사 비로자나불 삼신패불도>



①



②



③

<윤봉길의사 친필 편지봉투>